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100周年標語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感謝の百年、希望の百年
(데살로니가전서 5:18)

福音新聞

THE GOSPEL NEWS

11月1日(土) <2008年> 第670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電話 03(3202)5398 番

発行人 鄭然元・編集人 朴寿吉

毎月1回1日発行 購読料1部100円

昭和38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

印刷所・青丘文化社

Tel.047-495-2555 Fax.047-432-7912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100周年 記念大会 開催

主題「感謝의 100年、希望의 100年」 아래 大阪女学院채플에 千数百名 모여 盛大히



日時: 2008年10月13日(月)午後1時
場所: 大阪女学院ホールチャペル

「感謝の100年、希望の100年」大祝祭のふもと大阪에서 타 올랐다. 지난 10월13일 午後1時, 大阪女学院 채플에서 宣敎100周年大會를 開催하여 디아스포라敎會로서 宣敎2世紀를 向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記念大會는 3部로 나누어서 進行되었는데, 이 뜻깊은 자리에 總會所屬100敎會 牧會者를 비롯하여 信徒 및 國內外來賓等予想 參席人員 1千名을 훨씬 넘긴 人員이 參席하여 場內에는 立錫의 余地가 없었다.

第1部 記念禮拜는 副總會長 崔榮信牧師의 司會로 大阪敎會 클로리아吹奏樂團의 前奏와 함께 100敎會 名牌을 들은 100名의 어린이들의 入場에 이어 禮拜委員 및 曾經總會長 및 曾經副總會長의 入場으로 開始되었는데, 副總會長 金漢範長老는 宣敎100周年을 感謝하는 祈禱에서 「요셉을 앞서 애굽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危機에 處한自己兄弟를 救援하기 위한 것은 물론, 그를 통하여 애굽 땅도 救援받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100周年을 맞

이한 우리 在日大韓敎會의 告白이 되게 하심을 感謝한다」고 祈禱하였다. 聖經奉誦은 高校生 裴眞謙(君神戶東部)과 尹美理媛(神戶)이 本文 創世記45章5節과 데살로니가전서5章18節을 韓國語와 日本語로 奉誦하였으며, 이어尹聖沢牧師(大阪北部)가 지휘하는 100名으로 構成된 宣敎100周年連合聖歌隊가 하이든作曲의 「天地創造」를 莊嚴하게 讚揚하였다.

總會長 鄭然元牧師는 說教에서 「지난 100년의 歲月은 偶然이 아니며, 우리가 일본 땅에 살다는 의미는 單純한 歷史的 產物이 아니라 하나님의 意志와 摂理가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宣敎를 堪當해야 할 在日大韓敎會는 和解의 道具가 되어야 하고 希望을 傳達하는 存在가 되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未來를 向한 希望의 祈禱는 敎會學校 代表로 金主安君(東京, 青年會代表)로 金榮民代表委員(大阪, 女性會代表)로 金信都(大宮, 禮樂는 安藤周平(名古屋)가 연주한後, 全協有志者로 構成된 랩팀(리더: 裴秉賢)의 祈禱와 노래로 이어진 活氣차고 意味있는 「100의 光」을 披露하였다. 女性會는 合唱과 長鼓놀이 등의 民俗舞踊에 이어 連合聖歌隊의 合唱과 함께 參席者全員이 「우리의 所願」을 合唱하고 記念大會를 마무리하였다.

第2部 記念式典에는 宣敎100周年 記念大會 現地實行委員長 金武士牧師가 司會를 맡아 進行하면서 100년의 歷史를 한눈으로 窺을 수 있는 映像물을 視聽하는 것으로 始作해, 宣敎100周年 記念事業實行委員長 崔正剛牧師의 인사, 總幹事 朴壽吉牧師의 來賓紹介와 함께 來賓祝辭로 이어졌다.

祝辭는 駐日本大韓民國特命全權大使 權哲賢大使가, 本國敎會를 代表하여 韓國敎會長老會 總會長 徐載鎰牧師, 日本敎會를 代表하여 日本敎會總會議長 山北宣久牧師, 에큐메니칼 代表로 韓國敎會敎會協議會(NCKC) 會長 林明奎牧師가 하였다.

이어서 美國改革敎會(RCA)와 宣敎協約締結式을 가졌으며, 100年 歷史에 깊은 同役關係를 가지고 協力한 敎團, 團體 및 功勞者에게 感謝牌을 傳達한後, 青年會 柳好美嬢에 의하여 朗誦된 大會宣言文을 통하여 參席者들은 새로운 100年을 맞이하는 在日大韓敎會의 使命을 다시 한번 確認하고 이것을 實踐하자」고 다짐하였다.

第3部 祝賀會는 宣敎100周年 記念事業實行委員長 崔金順牧師의 司會로 敎會學校의 作文 發表부터 始作하였는데, 洪眞麗君(大阪築港)의 「나와 敎會」의 朗誦과 大阪敎會 어린이들의 合唱으로 進行되었다. 青年會는 安善을 演奏로 피아노에 崔理英(京都, 바이올린에 洪信義(大宮, 첼로는 安藤周平(名古屋)가 연주한後, 全協有志者로 構成된 랩팀(리더: 裴秉賢)의 祈禱와 노래로 이어진 活氣차고 意味있는 「100의 光」을 披露하였다. 女性會는 合唱과 長鼓놀이 등의 民俗舞踊에 이어 連合聖歌隊의 合唱과 함께 參席者全員이 「우리의 所願」을 合唱하고 記念大會를 마무리하였다.

記念大會後에는 세라몬都호델로 자리를 옮겨 總會常任委員 및 各地方會代表들과 來賓들을 歡迎하여 禮節을 가졌다. 總會書記 金柄鎬牧師의 司會로 進行된 리셉션에도 各敎團代表의 祝辭가 이어졌다. (報告: 金柄鎬)

大會宣言文

宣敎100周年을 迎えた 私たちは在日大韓敎會は、過ぎし100年の間、ディアスポラ(散らされた民としての私たちの歩み)を見守り、導いてくださった神に感謝いたします。 私たちは在日大韓敎會は、宣敎が開始された時から今日にいたるまで、在日大韓敎會に集い支えてきた先輩たちの信仰を継承し、新たな100年に向かうにあたり、神が派遣してくださった地における宣敎使命を確認し、それらを實踐する決意を、ここに表明いたします。

1、私たちは、在日社会および日本社会に生きる人びとが福音によって生かされるための方策を具体的に研究・実践します。

2、私たちは、敎會における多様性を神から与えられた祝福として感謝し、豊かな信仰共同体を形成することに努めます。

3、私たちは、在日大韓敎會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確認し、合同敎會としての内実を整えるために努力します。

4、私たちは、あらゆる暴力を克服し、自然環境を含むすべての神の被造物が共生する世界の實現に向けて取り組めます。

5、私たちは、子どもたちが自らを肯定的に受けとめ、平和や命の尊さを知る心を育む敎育を推進します。

6、私たちは、多民族・多文化共生社会を日本において實現するため、「外国入住民基本法」の制定に向けて取り組みます。

7、私たちは、祖国の平和統一をはじめ、分裂のあるところと和解をもたらす「和解のしもべ」としての働きを行います。

8、私たちは、神の宣敎の業に共に參與するため、女性や青年が敎會の意思決定に積極的に参加できる道を広げるよう努めます。

9、私たちは、在日大韓敎會をはじめ、在日社会、日本社会、アジア、世界においてキリスト敎の精神をもって仕える働き人を養成します。

10、私たちは、世界の敎會の一致に向けたエキキュメニカル運動を、日本の敎會、本國の敎會、アジアおよび世界の敎會と共に推進します。

私たちは、これから始まる新たな100年においても、私たちと共に歩んでくださる主の導きを信じ、神から与えられた宣敎的使命に取り組み、神の國の實現に向けて歩むことを宣言します。



宣教100周年記念礼拝説教

感謝の100年、希望の100年

総会 鄭 然 元 (大阪教区)

読了 5:18



석전목사님의 후손들이 참석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שראל 민족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며 정착민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00년에서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을 드립니다. 이 기쁨의 자리를 위해 일본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방문해 주신 선교 협력교단의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0년 전 우리 한민족은 세계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바람 앞에 등잔같이 불안하였습니다. 격동의 시기였던 1905년 한일보호조약 이후,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지도자들은 우리보다 일찍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본은 유학으로 보낸 우리 청년들을 통해 온갖 새로운 문물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을 통해 온갖 새로운 문물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통해 온갖 새로운 문물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땅 일본에 살게 되고 한민족의 복음이 조선사람들을 위해 퍼지기 시작한지 100년! 이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나라와 이름도 빼앗기고 오직 살아가기 위해만 버둥쳐온 슬픔에 넘쳐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그 슬픔의 광경을 목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목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자의 사랑을 더했습니다. 그는 형들을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자의 사랑을 더했습니다.

엘렉서는 430년의 긴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형들을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자의 사랑을 더했습니다.

다. 그리고 예언을 기록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 바벨론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낳고 너희 딸이 남편을 낳고 너희가 그들을 양육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출몰하기를 보라.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출몰하기를 보라.

에베소서 2장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그의 식민지 하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살아야 할 근근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살게 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로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100주년 기념을 하니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이 땅 일본에 살게 하신 이유에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화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전 5장에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할 우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YMCA 在日同胞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 2006年4月25日、創立100周年を迎えました。

◆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ホテル)：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サービス。10名様から220名様の会議及び宿泊研修(50名様)も可能。

◆スペースワイホール：22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最適

◆韓国文化(チャン・カヤム・舞踊)教室・韓国語講座・各種こどもクラス

◆YMCAアジア語学院(日本語学校)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

(税込)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300	¥5,040
ツイン	¥11,550	¥9,240
トリプル	¥14,490	¥11,592

朝食¥200 カルピック、コムタン、ユッケジャン、韓国食、洋食 (全メニューコーヒークラス)

在日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TEL 03-3233-0611 FAX 03-3233-0633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TEL 06-6981-0781 FAX 06-6981-0782

不動産管理 アルカンシエル名駅 李光世 (名古屋教会 長老)

〒453-0013 名古屋市中村区亀島2-2-27 電話・FAX 052-451-7713 携帯 090-3578-7571 E-mail: kwangse.lee@nifty.com

医療法人 おりお心クリニック 院長 金長壽 (福岡中央教会 長老)

診療科目：神経科 精神科 心療内科 精神保健相談 酒害相談

診療所：〒807-0825 北九州市八幡西区折尾4-2-8 TEL (093) 603-3280 FAX (093) 603-7985

自宅：〒813-0003 福岡市東区香住ヶ丘1-14-8 TEL・FAX (092) 672-9410

株式会社 ニューキング 三愛 取締役社長 李鍾善 (名古屋教会 長老)

ニューキング 四日市市野田1丁目965-1 TEL (0593) 31-4771(代)

三愛 岡崎市大和町字荒田14-1 TEL (0564) 31-8893(代)

各地方会で行事開催

※お申込みは、総会事務局へ
TEL. 03-3202-5391

歴史コラム⑦③

戦後の在日大韓基督
教会のリーダーたち(7) **李仁夏牧師**

李清一(歴史編纂委員会)



写真：李仁夏牧師

李仁夏牧師は、1960年10月に開催された在日大韓基督教会（KCCJ）の第16回定期総会において、2年制有給総務局長に選出された。それから13年間、李仁夏牧師は初代総務として川崎教会と兼務しながら、KCCJの実務責任者として視務した。

KCCJは有給総務の設置によって、教団として対内的なまとまりと事務体系を整えた。総会録にある総務総括報告は、1971年から取り入れられた。対外的には、李仁夏牧師の総務時代には、すでに加盟していた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NCC）と世界改革教会連盟（WARC）に加えて、世界教会協議会（WCC）、アジア・キリスト教協議会（CCA）、日北米宣教協力会（JNAC）などへの加盟が行われ、世界規模のエキヌメニカルな宣教協力関係の道筋が拓かれた。ま

た、李牧師は、青年局長、宣
教局長、教育局長、総会長
(73・75年)を歴任すると
共に、エキユメニカル団体
で活躍し、KCCCJの宣教
課題を広く知らしめると共
に、エキユメニカルな課題
をKCCCJにもたらず役割
を担った。

李仁夏牧師は、1925
年6月、慶尚北道漆谷郡
(現・龜尾市)において、父・
李国賢と母・金希との間に
生まれた。2歳の頃、父親
の仕事の関係で咸鏡北道鏡
城郡に移り住んだ。中学時
代は、清津市にある私立泰
成中学に通ったが、1年生
の学年末に、クリスチャン
であった校長が学校レベル
での神社参拝を拒否したた
めに、学校が閉鎖されるこ
とになった。そのため、41
年に15歳で単身渡日し、京
都の東寺中学の2年生に編
入することとなる。それ
で、中学3年生の時に
出た英語教師の和田正氏によ
りキリスト教に導かれ、43
年4月に、日本基督教団京
都西田町教会において、中
西貞雄牧師より受洗した。
その後、8・15を迎えて
帰国を準備していた時、当
時、同志社大学神学部在籍
していた金元治神学生
(現・大阪西成教会元老牧
師)と出会い、帰国したら
神学を学びたいとの志を告
げると、「分断で揺れ動い
ている母国にまともな神学
校などあるのか。せつか
く留学しているのだから、
日本で学んでから帰っても
遅くない」とたしなめられ
た(「歴史の狭間を生きた
」)。そのことが契機とな
り、中西牧師の薦めもあ
り、東京神学大学に学ぶこ

ととなった。そして、神学校入学と同時に教鞭を在日大韓基督教会東京教会に移した。これが、KCCJとしてのつながりの始まりであった。

1951年8月に、京都の母教会時代に親交のあった酒井幸子氏と結婚。52年に多摩川伝道所（現、東京調布教会）で開拓伝道に励み、53年10月に牧師按手を受けた。55年7月からの2年間は、カナダのトロント大学ノックス・カレッジに留学した。帰国後は、東京教会の副牧師に就任し、学生伝道を担当していた。

1959年、ソウルの韓国基督教長老会城南教会から招請があり、李仁夏牧師はこれを受け、帰国を決心するが、幸子師母の国籍問題や長男啓展君の重病などが理由で実現しなかった。

それ以来、96年に引退するまでの37年間、川崎教会で視務することになる。

李仁夏牧師の働きは、KCCJ内に留まらず、日本のキリスト教界、アジアや世界のキリスト教界にも広がっている。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総幹事代行（1968～70年）、同議長（82～85年）、世界教会協議会人種差別と闘うプログラム委員および副委員長（70～82年）を歴任した。また、地域社会では、和解の福音に任えるために何ができるかと信徒と共に問い直し、礼拝堂を地域に保育園（桜本保育園の前身）として開放した。さらには、88年の公設民営の「ふれあい館」や、「おおひん地区高齢者交流センター」の開設にいたっている。

在日同胞の差別撤廃運動

では、1970年に日立職差別の法廷闘争「朴君を囲む会」の呼びかけ人代表、民族差別と闘う連絡協議会全国代表（75・95年）、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全国キリスト教連絡協議会の共同代表などを歴任している。

李仁夏牧師は、1979年以降、『寄留の民の叫び』（79年）、『明日に生きる寄留の民』（87年）、『自分を愛するように』（91年）、『歴史の狭間を生きる』（06）を出版している。最後の書となった『歴史の狭間を生きる』は、李牧師の自伝であると共に、同時代史でもある。それが故、在日宣教に取り組む上で、最良の手引書ともなっている。

李仁夏牧師は、2008年6月30日天に召された。享年83歳であった。

**在日大韓基督教会總會立 總會神学校
2009年度 学生募集案内**

本校は、一般教育を終了した者が、専門語学、聖書神学、歴史神学、組織神学、実践神学、KCCJ神学を含め、牧会神学の六領域の学びを統合的に修めながら、現代の、特に在日同胞社会の多様性に十分対応できる伝道者の養成を目指す神学校です。

1. 募集人員：①神大院生（3年課程、及び2年課程）若干名
2. 出願資格：①受洗後、1年以上であること。
②在日大韓基督教会の正会員（但し、他教団出身者は要面接）。
③伝道者への召命感があること。
④一般大学卒業者および他神学校卒業者
3. 出願期間：2008年12月1日（月）～2009年1月31日（土）
4. 提出書類：①入学願書（本校所定の用紙）②志望理由書（400字5枚）③履歴書（本校所定の用紙）④推薦状（所属教会の牧師または代表）



写真：宣教100周年記念大会で
作文を読む洪篤磨君

僕にとって教会は、神さまと会話をする所だと思ひます。僕が自分の犯した罪や、いやなことでもポロポロになった心の中を、すべて話した時、神さまは、そんな僕の心を癒してくださると思ひます。その神さまとの会話を今から続けて行けば、きっと僕の心は神さまの言葉でつまっていき、その言葉を悲しんでいる人や、困っている人に話せば、みんなが幸せになると思ひます。

偶然かも知りませんが、教会に行かない日が続くと、雨が降ることが時々

あります。この雨はきつと神さまの涙だと思えます。逆に教会に行っている時は、晴れ晴れとしたすっきりした空になります。だから空を見上げれば、神さまの気持ちがかかるような気がします。神さまもきつと天から僕たちを見守つていてと思います。

私と教会

大阪築港教会
洪 篤 磨(小学6年生)

人になりたいです。
築港教会の日曜学校の生徒は、僕一人だけですが、一人は一人なりに楽しいです。一人でも、一生懸命教えてくれる先生に感謝です。

ていると思います。だから、僕はこれからも教会に行つて、愛と勇氣をもらつて、将来は人の役に立ちたいです。

す。色は「紫」で、「悔い改め」「懺悔(さんげ)」「謙遜」の意味があります。主イエス・キリストの降誕を悔い改めつつ待つということですね。2008年は、11月30日、12月7日、14日、21日

「灰の水曜日」から「イースター」までを「レント」と言い、(受難節・四旬節) とい、灰の水曜日から始まる主日を除いた40日間です。この期間の色は、「紫」です。2009年のイースターは4

うことになります。『契約節』は、2009年10月25日から11月22日までで、「緑」を用います。教会暦の一年の最後として、「感謝祭」をもって締めくくります。

きつと神さまは、どんな
小さな教会でも見守ってく
ださっていて、一人一人に
生きる勇氣と愛をくださつ

とても温かな教会です。
神さまと築港教会に、感謝！

がアドベント期間中の主日
となります。

クリスマスから1月6日
の「公現日」(東方博士の記

月12日です。イースターは、紀元325年のニカヤ会議において、「春分の日」の後の満月の後の日曜日」

講壇布に縫い込まれているお馴染みのKCCJのマークは、「キリストに従ってこの世へ」との標語

講壇布とKCCJの
マークについて



マークのついた講壇布が二枚一組で、それぞれの教会に贈られました。赤・紫・緑・白の4色の布は、教会暦にとって重要な意味をもっています。

日」までは、「公現節」とも呼ばれ、「緑」をういます。緑は、「永遠」「希望」「成長」を表します。2009年の公現節は、1月6日～2月25日です(あるいは、クリ

問は、「復活節」で、「白」を用います。

「ペンテコステ」から『契約節』（クリスマスの9週間前からアドベントまでの期間）までは、「赤」を用い

「青」、小さな円は教会（キリストの体）として「赤」で表されています。そして、キリストの十字架が、教会と世界を突き破っています。今日においても、その

今年9月に在日大韓基督教会(KCCJ)100周年を記念して、KCCJの

『アドベント』（待降節・降臨節）からで、「クリスマス」（降誕日）前の4週間

までを『降誕節』として「白」を用いる場合もあります。

トの血」「熱心」「聖霊」を表します。2009年は、5月31日から10月24日とい

ル・マークではないでしょうか。

（呉寿恵教育主事）

**在日大韓基督教会總會立 總會神學校
2009年度 學生募集案内**

5. 試験：⑤最終学校の卒業証明書 ⑥最終学校の成績証明書 ⑦写真2枚
①試験日時：2009年2月17日(火) 午前10時～
②試験会場：総会神学校（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4-5-1
TEL 03-3899-9861）
③試験科目：聖書、英語、面接
④受験料：5,000円
⑤合格発表：2009年3月6日(金) 書面にて通知

①本科：出願資格参照。但し、在日大韓基督教会の正会員として他の神学校を卒業し、在日大韓基督教会の考試の受験を志願する者は、校長の推薦を得て本校にて1年以上の修学のために入学しなければならない。加入宣教師の場合も同様である。

7. 受講時間：月曜日から金曜日9：00～17：50

※入試に関する問い合わせは、教務まで
(教務 韓聖炆牧師: TEL03-3890-3365、携帯電話080-3355-3890、
godlove1953@ybb.ne.jp)